

연구결과인 'Connecting East Asia: A New Framework for Infrastructure'를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ASEAN 행동계획'<sup>3)</sup>에 근거하여 메콩지역의 해외투자 촉진

을 위하여 국제무역개발협의회(UNCTAD)와 함께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투자환경 정비·개선정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박성윤】

#### ◆ 프랑스 Coface, 일본에서 수출보험업무 개시

1995년부터 일본 보험시장에서 기업을 상대로 일본 국내신용보험을 제공해온 프랑스 Coface가 동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 만에 수출보험분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동안 Coface는 도쿄와 오사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Coface Japan, Coface Services Japan, Kompass Japan 등 세 자회사를 통하여 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또한, 일본의 주요 보험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는데, 1999년 국내신용보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맺었던 Sompo Japan과 올해 협약 범위를 수출신용보험까지 확대하였다. 2000년에는 일본기업에게 위험보증 제공 목적으로 TEIKOKU DATABANK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는데, Coface는 현재 동 은행의 120만 건에 달하는 일본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으로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에는 일본수출보험공사인 NEXI와 단기보험과 관련하여 Coface의 신용정보시스템인 @rating 사용 계약을 맺음으로써 일본수출기업에게 직접 Cofanet을 통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oface는 수출보험 업무와 관련하여 일본 시장에서 내세우고 있는 자사의 장점으로 우선 176개국에 걸쳐 4,400만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 효율적인 국제적인 손실보상을 보장해 준다는 점을 꼽는다. 1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일본 시장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다.

Coface는 금번 수출보험 업무확대를 일본시장 내 주요보험기관으로서 자리를 한층 더 확고히 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이진경】

#### ◆ 노르웨이 수출금융회사(Eksportfinans), 설립 이래 최대 수출금융 지원실적 기록

노르웨이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인 Eksportfinans는 2004년 중 수출금융으로 122억 노르웨이 크로나(이하 크로나)를 대출하여

설립 이래 최대의 지원실적을 기록하였다.<sup>4)</sup> 2004년 말 미인출 잔액도 72억 크로나를 기록하여 2003년 말 31억 크로나 대비 232%

3) 2004. 11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ASEAN+3'에서 체결된 일본과 동남아시아연합국과의 협력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 경제협력 강화 등을 포함함.

4) 2003년 중 수출금융 대출 실적인 59억 크로나 대비 두 배 이상의 높은 실적을 시현.

〈표〉 노르웨이 輸出金融會社 개요

<p>□ 연 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2년 자본재수출과 관련한 중장기신용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li> <li>○ 1978년 이래 공적수출신용 취급</li> <li>○ 1999년 Kommunekredit Norge AS 합병</li> <li>○ 민간이 지분의 대부분(85%)을 보유한 민간기관</li> </ul> <p>□ 업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로부터 공적수출신용제도의 운영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건전한 상업성 원칙'에 따라 운영</li> <li>○ 수출금융제도는 크게 ①공적 수출신용 ②상업적 수출신용 ③컴비네이션 대출 ④해외영업지원자금 ⑤언타이드 혼합신용 ⑥선박금융 등으로 구성</li> </ul>
--

증가 하였다.

이러한 지원 실적의 급증은 2004년 중 노르웨이 수출산업의 발전과 Eksportfinans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으로 가능하였다. 노르웨이의 수출산업은 수년간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코로나의 저금리 추세에 힘입어 2004년 중 조선, 수력발전 및 석유·가스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그리고 Eksportfinans는 2004년 중 자국의 수출자, 외국 수입자 및 금융기관들 앞 마케팅을 강화하였고 특히 신흥시장

인 BRICs 앞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국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리파이낸싱에도 주력하여 대출 실적 증가에 노력하였다.

자국 수출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Eksportfinans는 대출과 병행하여 보증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2004년 말 보증잔액도 29억 크로나로 증가(2003년말 보증잔액 13억 크로나)하였다.

【이 윤 관】

### ◆ 태국 수출입은행 2005년 상반기 동향

최근 태국 수출입은행(이하 '태국 수은')은 수출금융서비스와 수출자문서비스를 망라하는 종합 수출지원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특히 태국 수은은 2005년을 중소수출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초년으로 지정하고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태국 수은은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제도(Export Market Diversification to FTA Countries Campaign)'을 공표하였다. 이는 태국 수출기업이 현재 태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마무리한 FTA 체결국(중국, 인도, 호주)으로의 원활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